

타이거 우즈가 23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 PGA 그랜드슬램 골프대회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갤러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K-리그 챔피언 내일 결정난다

오후 2시 수원-성남 2차전

‘마지막 한 판’만 남았다. 지난 3월12일 막을 올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이 25일 오후 2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과 성남 일화의 챔피언 결정 2차전을 끝으로 9개월여 대장정을 마감한다. 정규리그 전·후반기,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 1차전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76경기 가 열렸고, 마지막 한 경기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일전에 주인공으로 나설 두 팀은 각각 비장한 각오로 담금질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1차전에서 종료 2분 전에 터진 우성용의 헤딩 결승골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경기 우승팀 성남은 강릉에서 3박4일 짜리 전지훈련을 마치고, 23일 분당 탄천에 있는 홈 구장으로 돌아왔다. 바람 끝에 몰린 수원은 24일 화성 블루윙스 전용훈련장에서 비공개 훈련으로 역전 우승을 위한 비책을 연마한다. 챔피언 결정 2차전은 성남이 이기거나 비기면 우승을 확정하고 수원이 1-0으로 이기면 승부를 연장으로 뒤풀어간다. 연장에서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신의 톨렛게임’인 승부차기까지 가야 한다. 2004년 수원과 포항이 수원벌에서 승부차기로 우승컵의 주인을 가렸다. 수원이 두 골자로 이기면 역전 우승이다.

우즈 끝없는 왕중왕 행진

PGA 그랜드슬램 7번째 우승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메이저대회 우승자 4명이 겨루는 미국프로골프(PGA) 그랜드슬램에서 일곱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우즈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포이푸비치의 포이푸비힐프장(파72·7천81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로 6언더파 66타를 쳐 2라운드 합계 8언더파 136타로 우승했다. 짐 퓨릭(미국·138타)을 2타차로 제쳐 완벽한 승리를 거둔 우즈는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1998년~2002년 5회 연속 우승을 포함해 무려 일곱 번이나 정상에 올라 ‘메이저 왕중왕’임을 입증했다.

우즈는 처음 이 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1997년 2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일곱 차례 대회에서 모조리 우승컵을 싹쓸이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1라운드 때 드라이버 불안으로 퓨릭에 3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우즈는 전반에 퓨릭을 따라 잡았다. 2번홀(파5)에서 두 번째샷을 그린에 올린 뒤 간단하게 1타를 줄였고, 3번홀(파3)에서는 4번 아이언으로 바람을 뚫고 낮게 깔려 날아가는 ‘스팅어샷’으로 1m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제자리 걸음을 걸던 퓨릭이 6번홀(파5)에서 첫 버디를 뽑아냈지만 우즈 역시 버디로 응수했다. 필요할 때마다 한방씩 터져나오는 우즈의

클러치샷은 9번홀(파4)에서 나왔다. 두 번째샷이 짧아 그린에 볼을 올리지 못한 우즈가 60도 웨지로 띄워 친 볼은 곧 바로 앞에 떨어지더니 홀에 빨려 들어갔다. 4.5m 짜리 버디 찬스를 만들었던 퓨릭은 우즈의 침입 버디에 기가 질린 듯 버디 퍼트를 실패, 공동선두를 허용했고 이어진 10번홀(파4)에서 2m 짜리 퍼퍼트마저 놓치면서 우즈에 단독 선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승부가 사실상 갈린 것은 15번홀(파4). 우즈는 4.6m 버디를 성공시킨 반면 퓨릭은 2m 버디 퍼트를 집어넣지 못하자 우즈는 2타차로 달아났다. 퓨릭은 16번홀(파4)에서 두 번째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면서 역전의 희망을 버려야 했다. 우즈와 퓨릭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나란히 버디를 보태 결국 우즈의 2타차 우승으로 경기는 마무리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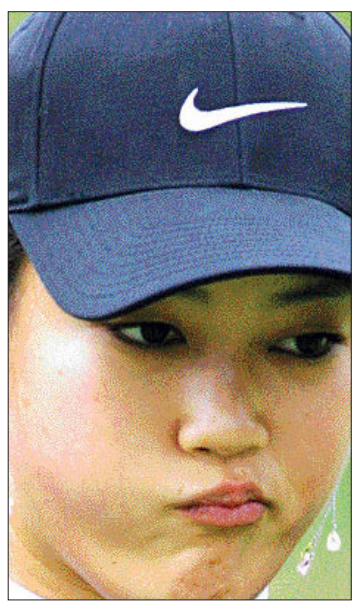


메르테자키 결승 헤딩골 23일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조별리그 5차전 브레멘과 첼시의 경기에서 브레멘의 수비수 페어 메르테자키가 헤딩슛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고교축구 상비군 해남에서 선발전

26일부터 열전 11일

차세대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는 고교 유망주들이 해남에 집결한다. 한국고교축구연맹 상비군 선발 및 해외파견 선수 선발전 대회가 오는 26일 해남 우슬 경기장에서 개막된다. 전국 50개 고교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2월 6일까지 11일 동안 총 90경기를 통해 한국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상비군 90명이 선발되며, 이중 20여명은 각 포지션별 해외파견 선수로 발탁된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탁구대회와 대학부 축구연맹전에 이어 고교 축구대회를 연달아 개최, 20억 상당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등 스포츠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현재 4개 축구구장 외에 1개 구장을 더 조성하고, 동초교의 잔디구장 공사를 조기에 착수해 각종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동계 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또 최하위 ‘악몽’

일본 남자프로골프 출전 위성미, 102명 중 101위 카시오월드오픈 1R 9오버파

11오버파 83타로 102위인 오토 모도미치(일본)가 아마추어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골퍼로서는 위성미가 최하위. 이로써 위성미는 세차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대회와 한 차례 유럽프로골프 투어대회에서 바닥을 헤맸던 악몽을 되풀이할 위기에 몰렸다. 올해 5월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컷을 통과했지만 PGA 투어 소니오픈과 84럼버클래스, 그리고 유럽프로골프투어 오메가마스터스에서는 최하위권 성적으로 탈락했고 PGA 투어 존 디어클래스에서는 열사병으로 중도 기권했다. 지난해 1라운드를 73타로 마치는 선전

끝에 1타가 모자라 아깝게 컷 통과를 이루지 못해 올해는 작심하고 출전했지만, 버디는 단 1개도 잡아내지 못했고 보기 9개를 쏟아내는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골짜기 전략의 수모를 당했다. 10번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 위성미는 12번홀(파4)에서 4타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고 14번홀(파3)에서는 3퍼트도 타수를 까먹었다. 15~17번홀까지 모두 그린을 놓치면서 4개를 연속 보기, 후반 들어서도 6개홀에서 보기 위기를 맞은 위성미는 보기 4개를 보태고 말았다. 한편 지브 밀카 심(인도)과 야노 아즈마, 하라구치 데쓰야(이상 일본) 등 3명이 6언더파 66타를 쳐 공동선두에 나섰고, ‘장타 청년’ 이원준(21)은 3언더파 69타로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허석호와 장익제(하이트)가 나란히 공동 48위(이분과 72타)를 달린 가운데 김종덕(나노소울)은 1오버파 73타로 부진, 공동 71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남자 프로골프 대회에 출전한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또 한번 쓴맛을 봤다. 위성미는 23일 일본 고치현 구로시오골프장에서 열린 일본프로골프 투어에서 극심한 샷 난조에서 시달리며 9오버파 81타를 쳐 출전 선수 102명 가운데 101위에 그쳤다.

브레멘, 첼시에 일격 UEFA 챔피언스리그

‘독일 분데스리가의 자존심’ 베르더 브레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첼시에 한 방을 먹였다. 브레멘은 23일 오전 베셀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조별리그 5차전에서 ‘전차군단’ 수비수 페어 메르테자키의 방아찧기 헤딩골로 두 해 연속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로만제국’ 첼시를 1-0으로 제압했다. 첼시는 그러나 3승1무1패(승점10)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브레멘과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때문이다. 지난 시즌 이 대회 우승팀 FC 바르셀로나(스페인)는 누캄프 홈 경기에서 루도비크 지울리,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연속골로 PFC 레프스키 소피아(불가리아)를 2-0으로 눌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